

weekly 동향 (11월 1주차)

데이터 수집기간 : 2023.11.10.~2023.11.16.

[지역혁신]

1.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을 선도할 2023년 글로벌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 발표 (23.11.13 교육부)

- (2023 글로벌 대학 평가결과 발표(10개 글로벌 대학)) : ①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 ②경상국립대학교, ③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④순천대학교, ⑤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⑥울산대학교, ⑦전북대학교, ⑧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⑨포항공과대학교, ⑩한림대학교 등 총 10개

<각 대학 주요 특징>

①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	1도 1국립대를 통한 글로벌 대학도시 대학 간 벽을 허물어 하나의 통합된 거버넌스 구축, 4개의 캠퍼스가 각 지역과 밀착하여 특성화
② 경상국립대학교	우주항공방산분야 글로벌 선도대학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의 국내 최대 집적지인 경남의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자체, 지역 내외 대학 협력
③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Edu-TRIangle이 만드는 새로운 미래교육도시 양 대학의 교원양성 기능을 일원화하고, 첨단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선도학교 연계 등을 통해 교원의 AI 및 디지털 역량 강화
④ 순천대학교	특화분야 강조지역기업 육성대학 지역의 3대 특화분야(스마트팜, 애니메이션, 우주항공) 중심으로 개편
⑤ 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K-인문 세계 중심 공공형 대학 지역 내 국립대학과 공립대학 통합, 경상북도 7개 교육 및 연구기관을 통합 운영하는 공공형 대학으로 전환
⑥ 울산대학교	울산 산업 대전환을 견인하는 지산학 일체형 대학 대학과 산업단지 간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도심 및 주력 산업단지 6곳에 멀티캠퍼스 설치
⑦ 전북대학교	전북과 지역대학을 세계로 이끄는 플래그십 대학 지역별 캠퍼스와 산업체 간 벽을 허무는 대학 - 산업도시를 조성하고, 온/오프라인 국제캠퍼스(센터)와 국내 캠퍼스 활용
⑧ 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통합을 통한 혁신 극대화, 지역과 함께 세계로 대학 통합을 계기로 캠퍼스별로 지역의 주력 산업과 연계하여 특성화*하고, 대학과 산업체가 협업하여 현장밀착형 기술 개발 및 인재양성을 추진하는 개방 공유(Open & Shared) 캠퍼스를 구축
⑨ 포항공과대학교	지역에 뿌리내려, 세계로 뻗어나가 열매 맺는 글로벌 대학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창업교육-사업화-인프라 등 글로벌 창업 퍼시픽 밸리 조성
⑩ 한림대학교	AI 교육 기반의 창의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열린 대학 학과간 벽을 허물어 3대 융합 클러스터(의료바이오-인문사회-AI)중심 체제로 대학 운영구조 개편

2. 국민 일상 편의 제고,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핵심과제 추진 (23.11.15 기획재정부)

□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발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

①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허용 (현행) 영상정보 가명처리 후 AI학습 → (개선) 철저한 안전조치 하 영상정보 원본을 자율주행 AI 학습에 활용 민간 중심 원본·정밀지도 데이터 거래시장 조성 정밀지도 제작을 위한 편집 전 원본데이터를 상호 공유 및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 및 유통방안 개선 검토
② 인공지능 (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데이터 개방 및 AI 학습데이터 시장 활성화 안전조치 하 공공기관 음성데이터(금감원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상황 음성데이터) 활용(보이스 피싱 등 민생범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의 AI서비스 개발지원)(~24) AI 사전적정성 검토제 도입 및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AI환경에 맞는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③ 생명 바이오 · 건강헬스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데이터의 활용 범위 및 절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보유 의료데이터 반출 범위 확대 (저위험 가명정보 포함) DTC 유전자 검사 허용범위 확대 (질병 유사 항목 포함) 유형별 구체적 가명처리 기준 마련 연구의 활용 목적·기간 일부 변경시 IRB신속 심의 (7일 이내) 의료 빅데이터 구축·개방 확대 및 의료데이터 표준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의견 반영한 데이터셋 구축 (현재 : 공급자중심) * 데이터중심병원·건보·심평원 등 보유 데이터 중 개방·활용가능한 데이터셋 구축시 업계의견 수렴 및 반영 데이터 결합 소요기간 : 6개월 (현재 : 1년) EMR 인증여부 평가지표 반영
④ 마이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도 프로젝트 및 분야별(의료 등) 특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마이데이터 도입 위한 하위 법령 마련 법 시행전이라도 '24년부터 선도 서비스 선정 지원('24년안 25억원)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의료 마이데이터 실증 프로젝트 우선 추진 (의료 마이데이터)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와 '산업·연구목적' 데이터 활용을 나누어 투트랙(Two-Track)으로 제도·인프라 정비 (트랙1)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 요청시*에도 본인 진료정보가 他의료기관으로 CD·서류 없이 전송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 (트랙2) 의료데이터가 기업·연구기관으로 전송되어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AI 등에 안전하게 활용되도록 제도 정비
⑤ 데이터 경제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 주도 데이터 생태계 조성 위한 제도적 인프라 강화 분산된 플랫폼으로 데이터 활용 어려움 → 통합검색 등 지원하는 One 윈도우 구축 공신력있는 데이터 가격/가치/품질 개인정보·데이터 안심구역으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

3.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확산을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 (23.11.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민·관 역량을 결집하여 범국가적으로 마이데이터를 추진하기 위한 최고위 정책협의체 출범) 이번 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및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

- 협의회는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설치되는 최고위 마이데이터 정책협의체로, 민·관이 함께 모여 마이데이터 제도 설계, 선도 프로젝트 추진 등 마이데이터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쟁점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 「법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및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3.7.24제정)

<향후 법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논의 의제>

회차	주요 의제
제 2차(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이데이터 제도 추진방향(안)•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계획(안)• ‘24년 선도서비스 지원 계획(안)
제 2차(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정책방향• 마이데이터 참여자간 전송체계 구축(안)
제 2차(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계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 지정 추진계획(안)• 10대 중점부문별 마이데이터 발전 전략(안)
제 2차(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년 제도 시행을 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추진방향(안)• 마이데이터 과금체계 정책(안)

4.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 촉진을 위한 단계별 지원 강화 (23.11.15 관계부처 합동)

□ (최근 쉬었음* 청년 증가에 대응하여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마련 및 발표) 기획재정부는 지난 4개월간(7~10월) 심층 실태조사를 진행, 쉬었음 청년의 유형별 특성을 체계화*하여,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

※ 쉬었음 :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쉬고 있는 이들

※ 정책 대상자 유형분석 :

재학 : (취준 : 적극형) 직장경험x, 구직의욕↑(취준-소극형) 직장경험x, 구직의욕↓,

재직 : (이직-적극형) 직장경험o, 구직의욕↑(이직-소극형) 직장경험o, 구직의욕↓,

구직 : (취약형) 다양한 환경적 취약성으로 니트화 위험성↑

○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대응

- **(재학)** 재학단계부터 조기 개입을 강화하여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쉬었음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속히 노동시장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올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본격 시행 (12→50개교) 하고, 직업계고, 일반계고 비진학 청년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설
- **(재직)** 재직단계에서는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직장부적응 등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조직적응(온보딩) 프로그램을 도입
- **(구직)** 청년이 구직을 포기하지 않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을 개선
 - ‘청년성장프로젝트 : 일상유지 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 쉬고 있는 청년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는 사업, 10개 지자체를 통해 '24년부터 시행될 예정

○ 특성별 취약청년 지원

- 다양한 환경적인 취약성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취약청년을 위해서는 고립 은둔청년 지원사업(13억원) 도입,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연 200만원) 신설

○ 기반(인프라) 개선

- (발굴 및 전달체계) 쉬었음 및 니트청년 발굴 및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고,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한 니트청년 발굴 방안을 모색할 예정
- (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 또한, 쉬었음 청년 증가의 근본원인인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산리단길, 스마트공장 지원 등 청년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2.4만명, 최대 200만원), 상생연대형성 지원 신설 등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을 강화

<자료의 출처 링크>

	부처	링크
1	교육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703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2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6473&menuNo=4010100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9546
4	관계부처 협동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6474&menuNo=4010100

- 상기 자료는 각 부처, 기관 보도자료를 통해 재구성된 자료입니다.